

世界産業環境大會에 다녀와서

이 두 호
〈環境廳 次長〉

本 글은 작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프랑스 베르사이유(Versaillesin France)에서 開催된 「世界産業環境會議」(World Industry Conferece on Environmental Management:WICEM)에 參席하고 돌아온 環境廳 이두호 次長의 國外出張 所感으로 本報에 특별기고한 것이다.

産業化와 環境問題에 대한 向後展望

環境問題가 汎世界的 問題로 問題化된 것은 최근 10여년래의 일이지만 이처럼 삼시간에 全世界의 關心이 集中되고 그 심각성이 確認된 問題는 일찍이 그 類例를 찾아보기 드물것 같다.

1972年 6月 UN이 스톡홀름에서 人間環境宣言(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을 制定 宣布한 이래 모든 國際機構와 이 地上的 모든 나라들이 政治的 이데올로기를 超越하여 다 같이 이 問題를 主要 政策課題의 하나로 採擇하게 되었고, 많은 國際會議과 많은 學術團體가 이 問題를 主要課題로 論議하기에 이르렀지만 今次 會議만큼 그 格이 높고 그 規模가 尨대한 國際會議는 처음이라고 생각된다.

이같은 時代潮流는 알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이른바 제3의 물결의 한 波長이라 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産業革命 이래 약200여년 동안 國富와 繁榮

의 象徴으로 禮讚되어 오던 産業化(Industrialization)와 2次大戰까지만 하더라도 大國의 基準으로 國力の 크기로 評價되어 오던 人口의 크기(Population size) 및 産業化와 더불어 文明의 보금자리로 豊饒와 安寧의 기쁨진 福地로 羨望의 對象이 되어 오던 都市化(Urbanization) 등 지난날 「國力」과 「國富」의 象徴으로 「文明化」와 「先進化」의 尺度로 評價되어 오던 이들 「産業化」「都市化」「人口增加」의 問題가 오늘날에 와서는 雇傭(Employment), 教育(Education), 保健醫療(Health), 住宅(Housing), 環境汚染(Environmental pollution) 등 社會的 諸問題의 三大 源泉으로 理解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들 諸問題中에서도 사람의 健康과 生命에 直結되고 地球와 自然生態系를 保全하고 持續的인 成長을 可能케 해주는 가장 重要하고도 基本的인 問題가 環境保全의 問題라고 認識되고 있는 것이다.

産業革命 이래 우리 人間은 참으로 無限한 人

間의 能力을 體驗하면서 技術을 開發하고 物質的 富를 이룩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人類 歷史上 가장 豊饒한 가운데 最大의 享樂을 누리 고 있다고 우리 人間은 自滿해 온 것 같다.

그러나 反面 오늘날 GNP 盲信下의 成長 至上主義는 無節制한 開發事業과 大量 生産— 大量 消費를 위한 工業化에 沒入한 나머지 自然資源을 過消費하거나 枯渴시키고, 綠地를 破壞하고, 水面을 埋立하여 恒産의 資源 寶庫인 自然生態系의 均衡마저 破壞하게 되었고, 生産工程에서 排出되는 大氣·水質·廢棄物등의 各種 汚染物質은 맑은 空氣, 깨끗한 물, 肥沃한 토양을 汚染시켜 사람의 健康과 生命을 威脅하기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오늘날에 와서는 人類의 生存과 地球의 存亡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이 地球村 到處에서 날로 深化되고 있는 사막화 현상, 열대림의 枯死, 오존층의 破壞와 잦은 氣象異變 및 1950 年代以來 London, L/A 등 대도시에서 頻發하고 있는 각종 Smog 現象에서 그 증상을 찾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들어 美國의 EPA는 CO₂의 증가에 의한 온실효과(Green house effect)로 향후 1세기 이내 해안도시의 水沒化를 경고하기에 이르자 지난 3세기 동안 그렇지도 도도히 至高至善의 가치로 崇仰되어 오던 産業化에 대한 反省論과 環境保全論이 전세계에 파급되기에 이르렀다.

Rome club의 성장의 한계론(The Limits to growth)이 그러하고, E.F.Schumacher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가 그러하며, 西獨의 綠色黨(die Grune : the green party)의 강령이 또한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10여년 來의 環境保全을 위한 UN의 努力(人間 環境宣言, 自然保護憲章, 사막화 방지운동등)은 全世界 모든 나라에 있어 環境政策의 기본 규범(Norm)이 되고 있다.

今次 會議은 이같은 새로운 세계적 물결에 대한 産業界로 부터의 妥協調整의 提議라는 인상이 짙은 會議라 할 수 있다.

물론 今次 會議에서도 一部 제 3 세계 대표들이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제 3 세계 국민들의 식량문제를 비롯한 최저생계문제가 環境問題보다 더 急하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각국의 産業化 정도와 입장에 따라 성장(Development)과 보전(Conservation)中 아직까지는 성장에 優위 가치를 두고 있는 나라도 없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알빈 토플러의 이른바 자연과의 공존 또는 조화(Symbiosis or harmony with the earth)속에서 지속적인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해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80 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성장과 보전의 均衡調和」를 環境政策의 基調로 삼게 되었으니 때 늦은 감은 있으나 무척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今次 회의에서는 당초 본 회의 組織委員會에서 시도했던 産業化와 環境保全간의 調整을 위한 Standing Committee의 設치가 印度, 아프리카 등 제 3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기존국제기구 대표들의 반대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멀지 않은 장래 産業과 政府간의 협조체제 振作을 위한 상설기구가 設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금세기 末이나 다가오는 21C 초반부터는 지난 세기의 정치적 Ideology의 對立에 맞먹을 정도의 産業主義(Industrialism)와 環境保護主義(Environmentalism)간에 팽팽한 對立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會議準備 및 進行에 대한 所感

本人의 경우 今次會議 참석에 앞서 1984.10.30에 出國하여 中共上海市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Resources Recovery and utilization Seminar에 11月10日까지 참석하고 곧바로 東京을 거쳐 Paris로 直行했기 때문에 今次會議에 관한 Programme을 받지 못한 채 현지에도 도착했다.

현지도착후 주최측에 配件하여 참가자 등록 등 회의일정을 문의하니 11月13日 오후 7시

부터 9시 30분 사이에 참가자들이 묵고 있는 5個 Hotel의 Lobby에서 등록을 하고 관계자료와 명찰을 받게 된다고 했으나, 막상 등록시간이 되니 아가씨 두사람이 나와 몇가지 자료가 든 brief case만 Key box에 넣어두고 등록은 다음날 개회식전에 회의장소인 Versailles의 Palais de Congres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회의장에 도착하고 보니 아가씨 7~8명이 4~5m 정도되는 단 하나의 등록 Desk에서 68개국에서 모인 480명의 등록을 받고 등록을 필한 사람에게 한하여 지정된 좌석표를 교부하게 되니 그 혼란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本人과 우리나라 산업계대표로 참가한 東立産業의 金弘準 사장은 하는 수 없이 개회식전의 등록을 포기하고 개회식후 그것도 전체회의 도중에 잠깐 나와 등록을 필하고 명찰을 달게 되었다.

저의 모든 外國代表들의 불평이 대단했다.

다시 보는 Paris의 모습과 市民相

나의 경우 國際會議 참석을 위한 15번째이다. 그중 Paris는 두번째 방문이다.

1976年 Spain Madrid에서 開催된 國際社會保障 協議會(ISSA) 총회참석차 잠시들려 약 3개월간 머물면서 개선문, 에펠탑, 콩코르드廣場, 루블박물관 및 상제리제 거리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先進이구나”하고 “先進”이란 용어의 의미를 실감했는데今次 다시 찾아든 Paris에 대하여 다시 한번 全市街地가 文化財이구나 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Rome는 위대한 유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管理가 소홀한 반면 Paris는 참으로 잘 管理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반면 사람들의 생활모습들은 고물가와 지나친 개인주의속에서 무척 외롭고 피곤하게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社會黨政府가 執權하고 부터는 실업자와 길거리에 거지가 늘어나고 國民거의가 일은 많고 놀고 먹겠다는 풍

조가 늘어나고 있다고도 한다. 또한 프랑스 國民들이 Napoleon보다는 Degaulle을 더 위대한 영웅으로 존경한다는 案内員(Miss, AUBRIOT-Paris大 사학과 출신)의 얘기를 듣고 그 이유를 물으니 Napolen은 자기와 자기측근들의 호사만 누리고 프랑스를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나 Degaulle은 프랑스를 구한 위대한 군인이며, 전후에 프랑스의 復興을 가져 온 위대한 대통령이며, 사후에도 그의 유언에 따라 故郷山川에 凡夫凡婦들과 함께 平凡한 하나의 흙무덤으로 돌아간 청렴결백한 지도자였다는 것이다.

그 설명을 듣고 보니 Degaulle의 一生이야 말로 사심없는 애국자로서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참으로 값진 좋은 敎訓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日本の 威力

日本은今次 會議에 大阪所在 Sumitomo Chemicals의 회장 Norishige Hasegawa 씨와 Honda motors의 최고고문이자 日本商工會議所 부회장인 Soichiro Honda씨를今次 會議組織委員會의 멤버로 참가시키고 있었으며, 日本政府와 산업계 및 학계에서 무려 21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대표단을 派遣하는 한편 회의중반에 85,000US \$의 회의경비를 주최측에 喜捨하기도 했다.

해외여행을 할때면 언제 어디서나 느끼는 일이지만 日本은 이제 日本列島에 한정된 日本이 아니다.

세계도처 대도시치고 그 要路 要所에 日製時計, 日製自動車, 日製電子製品등 日本商品의 선전광고탑이 서있지 않은 곳이 없으며, 그 어느 都市 어느 商街의 진열장치고 日本商品이 진열되지 않은 곳이 없다. 뿐만아니라 이 地上의 모든 공항, 모든 관광지, 모든 레스토랑, 모든 기내에 우리 한국인이 허겁지겁 당도하고 보면 日本人들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여유있게 앉아 있는 것이다.



그것도 대개의 경우 집단으로 때를 지어서 말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만하거나 교만해 하지도 않는다. “도모” “도죠” “쓰미마생”을 연발하면서 실속을 챙기는 그 예절 바른 행동은 상대방의 속 주머니속에 깊이 감추어진 비상금까지도 털어 놓게 한다

돈을 버는 商術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돈을 쓰는 고객의 입장에서라도 그들은 무시 못할 세계 제일의 고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도처 그 어느 비행기 그 어느 관광 Bus를 타 봐도 日本語案内放送과 日本가요를 들을 수 있는 Ear phone이 갖추어져 있다. Paris체제중 Lido Show와 Crazy horse show를 보았는데 두곳에 공히 제일앞자리 일등석은 日本人들이 때를 지어 자리잡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Show 첫머리부터 사회자가 日本語로 “아

리가도”라고 인사말을 하고 있었고, Show중간 중간에 코메디를 엮어 나가면서도 日本語로 흥내를 내어 日本人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제 日本은 전세계의 日本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뿐만 아니라 日本人들이 上下間에 갖는 上敬下愛를 보면 日本은 아직도 그 將來가 창창하구나 하고 그 저력을 엿보게도 한다.

實例로今次 회의에 참석한 日本代表들중 젊은이들이 백발이 성성한 그들의 상사들 앞을 지나칠 때 하루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부동자세로 고개를 숙여 “하” “하”하면서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야 말로 別種이요, 저것이야 말로 日本의 번영을 기약하는 저력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럽기가 한이 없었다. *

의식개혁 9대실천요강

정직 모든 생활은 정직에 원칙을 두고 새시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불신품조를 과감히 추방한다.

질서 모든 생활의 기초를 질서에 두고 이를 체질화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최대한 경주한다.

창조 왜곡된 미풍양속의 본질을 되찾아 민족정기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책임 모든 공직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무사안일등 고질적인 폐습에서 탈피, 스스로를 철저히 책임지는 풍토를 확립한다.

본분 각자가 자기본분에 충실하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분수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각종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를 정립한다.

주인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부정·비리와 무질서에 대한 건전한 고발정신을 함양한다.

국민화합 지나친 이기주의와 뿌리깊은 파벌, 연고의식을 철저히 불식함으로써 국민화합의 기반을 확충한다.

가정교육 모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